



자산전략 주간 포인트 시즌 2.

9월 셋째 주 《빅컷 그 이후는?》

SK증권 자산전략부

- 채권전략. 윤원태 3773-8919, yunwt@sksgo.co.kr
퀀트전략. 황지우 3773-8072, jeewoo.hwang@sksgo.co.kr
경제환율. 류진이 3773-9226, jinleecon@sksgo.co.kr
주식시황. 조준기 3773-9996, junkee.cho@sksgo.co.kr
R.A. 박유진 3773-9938, youjin.park@sksgo.co.kr
R.A. 원유승 3773-9181, ys.won@sksgo.co.k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자산시장 Point to Point

2

그림으로 보는 Top to Bottom

3

주간 Check Point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경제/금리

빅컷 이후 한숨 돌리기

- 미 연준은 9월 FOMC에서 빅컷으로 인하 사이클을 본격 개시. 다만 빅 컷에도 불구하고 금년 성장을 전망치는 상향 조정이 아닌 2.1%에서 2.0%로 하향 조정. 시장의 올해 성장을 전망치는 2.5%로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은 성장을 2.0%를 전망. 파월은 경기 침체 아니라고 선은 그었으나 제시한 전망치 자체는 시장 예상보다 경기 둔화 폭은 깊음
- FOMC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는 혼조세 지속(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예상치 상회, 실업수당 청구건수 예상치 하회 vs 기존주택판매 예상치 하회). 빅컷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침체 우려를 쉽게 덜어내지 못할 만한 상황이나 일단은 빅컷 이후 금리 인하의 효과를 기다릴 시점
- FOMC는 일단 지나갔으나 오늘은 일본은행 금정위에 주목해볼 필요. 일본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흐름을 미루어볼 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높으며 이는 12월이 될 것으로 전망. 이번 회의에서 추가 인상과 최종 금리 관련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
- 국고채 금리의 경우 전일 큰 폭으로 상승. 당사는 10월 금통위에서 첫 인하 개시 전망. 다만 현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시장금리는 10월 금통위 전까지 단기적으로 조정될 가능성 존재

주식 전략

침체 없는 인하는 금융환경 완화 및 증시 상승 재료

- 연준은 9월 FOMC에서 빅컷(50bp) 인하를 단행하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 긴축적인 통화정책에도 금융환경을 완화적으로 만들어 주던 적극적인 재정정책 또한 대선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 돈이 풍부한 상황 당분간 지속 전망
- 최근 고용지표 부진 등으로 경기 우려 내러티브가 발생했지만 미국 3분기 GDPNow 나우캐스팅 데이터는 3% 내외에서 형성 중으로 침체를 이야기하기에는 이른 시점.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환경의 추가적인 완화를 기대하기 충분하며, 이는 증시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
- QT는 지속되나, 미국 단기자금시장 또한 굉장히 안정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제한적.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요인까지 작용하며 상대적으로 언더퍼폼 중이나 문제들이 일단락되고 나서 마주하게 될 환경은 매우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음



Part 1.

자산시장 Point to Point

일단은 빅 컷, 이후에는 베이비 스텝 예상

SK증권 리서치센터

- **빅컷은 했지만 찢찝함은 남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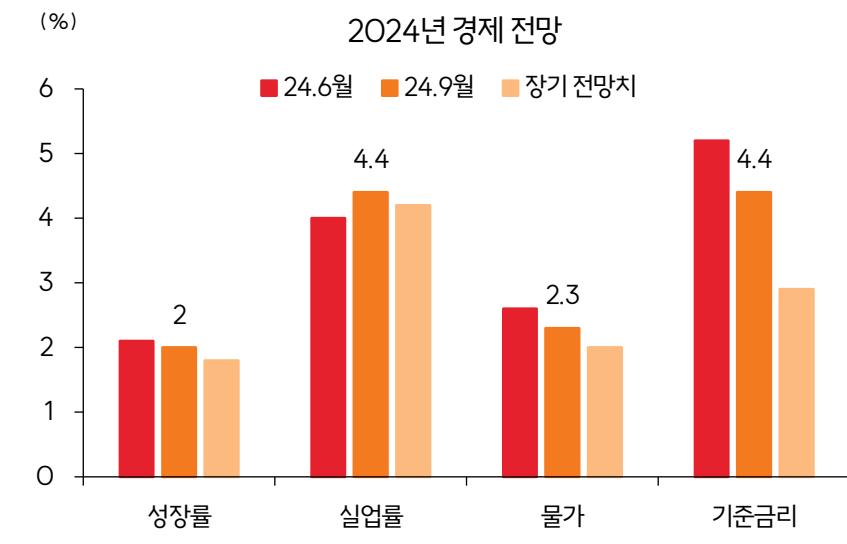
- 연준은 빅 컷과 함께 수정경제전망 발표. ①근원 PCE 물가 전망치 하향 조정, 물가 안정에 대한 자신감 확인. 물가보다 중요했던 ②실업률의 경우 금년과 내년 전망치를 기존 4.0% (2025년 4.2%)에서 4.4%로 상향 조정. 다만 ③금년 성장을 전망치는 상향 조정이 아닌 2.1%에서 2.0%로 하향 조정. 시장의 올해 성장을 전망치는 2.5%로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은 성장을 2.0%를 전망. 즉, 연준은 하반기 1% 초반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는 의미. 파월은 경기 침체 아니라고 선은 그었으나 제시한 전망치 자체는 시장 예상보다 경기 둔화 폭은 깊음. 빅컷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침체 우려를 쉽게 덜어내지 못할 만한 상황
- 연내 추가 빅스텝보다는 11, 12월 각각 25bp 인하 가능성에 무게. 파월이 경제와 고용시장도 양호함을 강조한 것을 생각하면 7월 금리 동결 이후 급격하게 50bp 인하로 전환한 것에 대한 정당성은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가운데 이번 정책 결정은 2022년과 같은 정책 실기를 범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 4분기 물가 기저효과로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추가 빅스텝 보다는 베이비 스텝 지속 전망

연준 성명서 변화

2024년 7월	2024년 9월
<p>Recent indicators suggest that economic activity has continued to expand at a solid pace. Job gains have moderated, and the unemployment rate has moved up but remains low. Inflation has eased over the past year but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recent months, there has been some further progress toward the Committee's 2 percent inflation objective. The Committee seeks to achieve maximum employment and inflation at the rate of 2 percent over the longer run. The Committee judges that the risks to achieving its employment and inflation goals continue to move into better balance. The economic outlook is uncertain, and the Committee is attentive to the risks to both sides of its dual mandate.</p>	<p>Recent indicators suggest that economic activity has continued to expand at a solid pace. Job gains have slowed, and the unemployment rate has moved up but remains low. Inflation has made further progress toward the Committee's 2 percent objective but remains somewhat elevated. The Committee seeks to achieve maximum employment and inflation at the rate of 2 percent over the longer run. The Committee has gain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percent, and judges that the risks to achieving its employment and inflation goals are roughly in balance. The economic outlook is uncertain, and the Committee is attentive to the risks to both sides of its dual mandate.</p>

자료 : FED, SK증권

연준의 금년 성장률에 대한 수정경제전망 변화



자료 : FED,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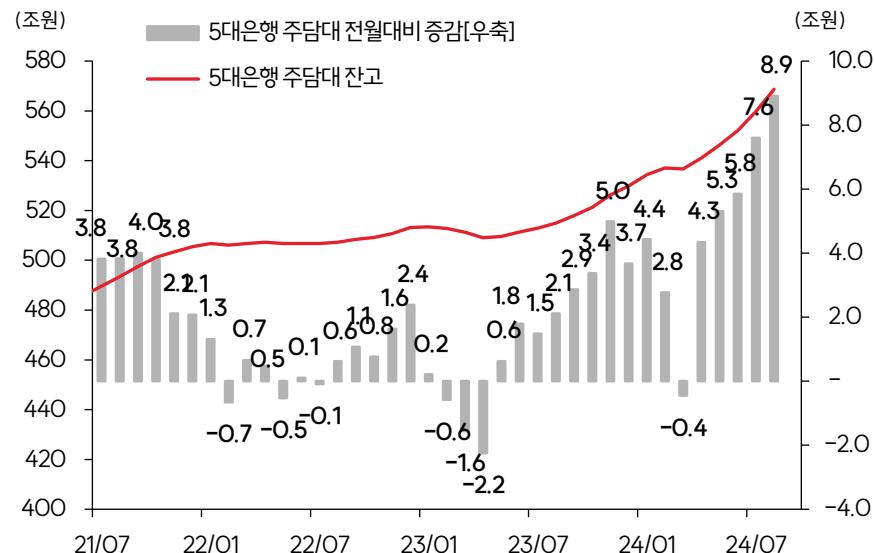
10월 금통위는 대외요인보다 국내 요인 점검 필요

SK증권 리서치센터

- 9월 FOMC 소화 이후 10월 금통위까지 국내 요인 영향력 커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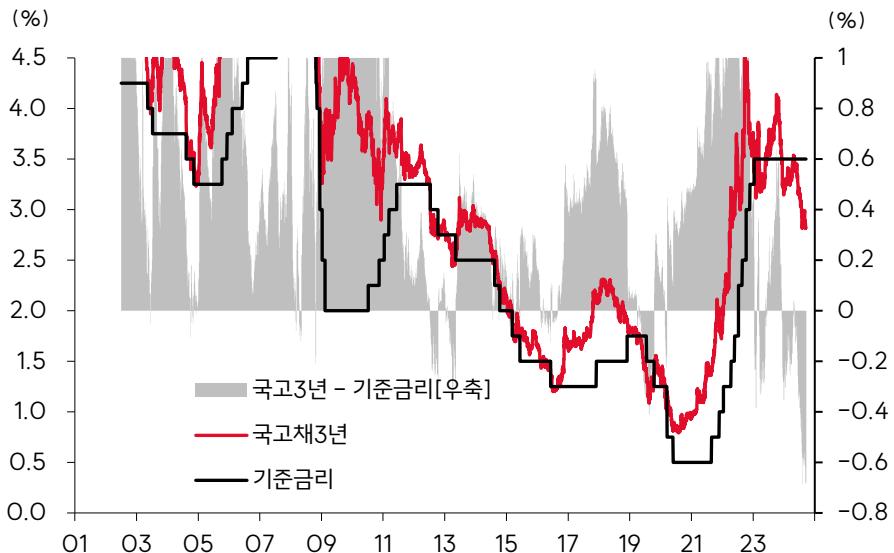
- 연준, 9월 FOMC서 예상을 뛰어 넘은 빅컷 단행. 그러나 시장금리는 이미 선반영된 상황 속 파월 의장의 예상 대비 매파적 발언 영향으로 금리 상승
- 한국은행은 미국의 빅컷 단행으로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 완화. 기준금리 인하 방해 요인이었던 외환시장 변동 요인 감소
- 8월 금통위에서 금융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던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10월 인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9월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승세 및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양상 보이기에, 10월 금통위 전까지 금융 불안 요인 둔화 예상
- 당사는 10월 금통위 인하 전망. 현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시장금리는 10월 금통위 전까지 단기적으로 조정될 가능성 존재

5대은행 주담대 증감 현황: 9월 연휴와 한도 규제로 둔화 전망



자료 : 한국은행, SK증권

국고채 금리와 기준금리: 과도하게 반영된 기준금리 인하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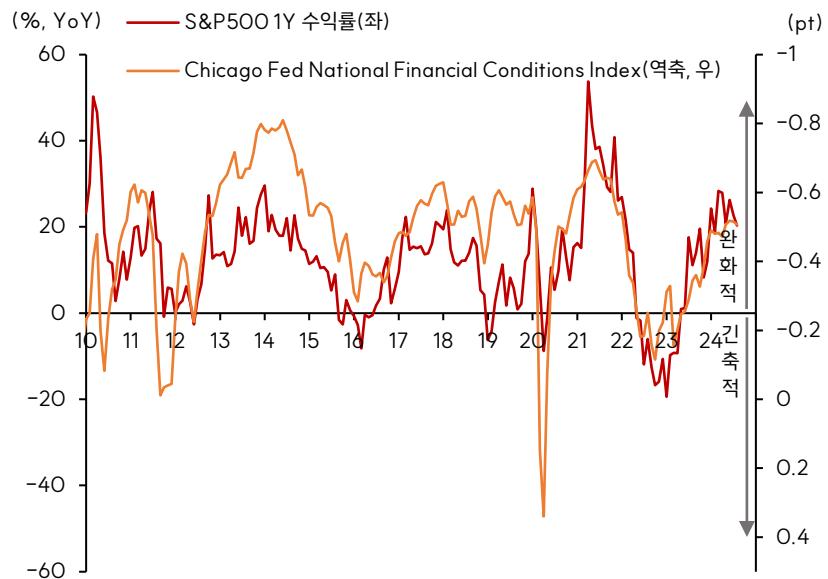
침체 없는 인하는 금융환경 완화 및 증시 상승 재료

SK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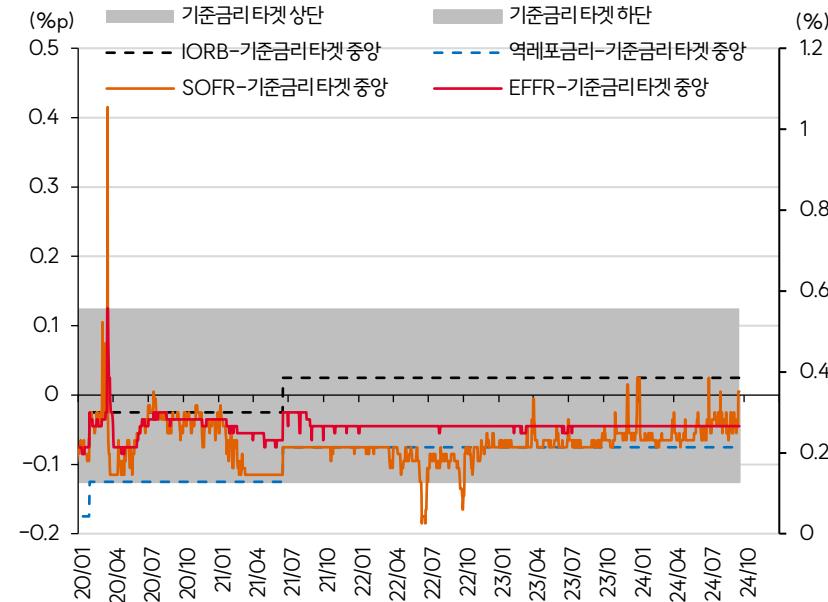
- 안개가 걷히고 나면 남을 것은 풍부한 유동성

- 연준은 9월 FOMC에서 빅컷(50bp) 인하를 단행하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 긴축적인 통화정책에도 금융환경을 완화적으로 만들어 주던 적극적인 재정정책 또한 대선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 돈이 풍부한 상황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최근 고용지표 부진 등으로 경기 우려 내러티브가 발생했지만 미국 3분기 GDPNow 나우캐스팅 데이터는 3% 내외에서 형성 중으로 침체를 이야기하기에는 이른 시점.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환경의 추가적인 완화를 기대하기 충분하며, 이는 증시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
- QT는 지속되나, 미국 단기자금시장은 굉장히 안정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제한적.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요인 까지 작용하며 상대적으로 언더퍼폼 종이나 문제들이 일단락되고 나서 마주하게 될 환경은 매우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음

본격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환경 추가 완화 기대



단기 자금 시장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음





Part 2.

그림으로 보는 Top to Bottom

1. Macro Core 3 Point

SK증권 리서치센터

● Core Point 1: 9월 FOMC, 결국은 단행된 빅컷

- 미 연준, 9월 FOMC 결과 기준금리 4.75~5.00%로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 실시. 시장의 관심사였던 빅컷(50bp 인하)도 단행됨. 성명서에서 고용에 대한 연준의 우려도 드러나. 단 보우먼 이사의 25bp 인하 소수의견, 점도표 속 2명의 연내 동결 전망 등 향후 인하 경로 관련 불확실성 잠재

● Core Point 2: 수정경제전망(SEP)에서 드러난 연준의 시각, 경기는 둔화 & 물가는 안정

- 9월 FOMC에서 함께 발표된 수정경제전망에서는 24년말 물가 전망치의 하향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 확인됨. 반면 성장을 하향 조정(2.1%→2.0%) 및 실업률 상향 조정(4.0%→4.4%) 고려 시, 경기 둔화에 대한 연준의 우려는 시장 예상 보다 큰 것으로 드러나

● Core Point 3: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미국 8월 실물지표

- 미국 8월 소매판매, MoM +0.1%로 예상(-0.2%) 상회, YoY로도 +2.1%로 추세는 둔화 되었으나 견조한 소비 이어져. 온라인 판매 급증이 소비 증가 이끌어. 산업생산(MoM +0.8%), 제조업 생산(MoM +0.9%)도 예상 및 전월치 대폭 상회

Core Point 1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For release at 2:00 p.m. EDT

September 18, 2024

Recent indicators suggest that economic activity has continued to expand at a solid 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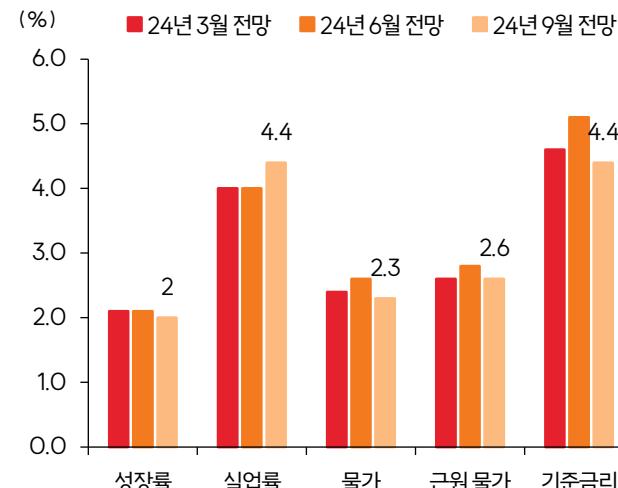
Job gains have slowed, and the unemployment rate has moved up but remains low. Inflation has made further progress toward the Committee's 2 percent objective but remains somewhat elevated.

“고용 증가세는 둔화되었고, 실업률은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attentive to the risks to both sides of its dual mandate.

In light of the progress on inflation and the balance of risks, the Committee decided to lower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1/2 percentage point to 4-3/4 to 5 percent. In considering additional adjustments to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the Committee will carefully assess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The

Core Poin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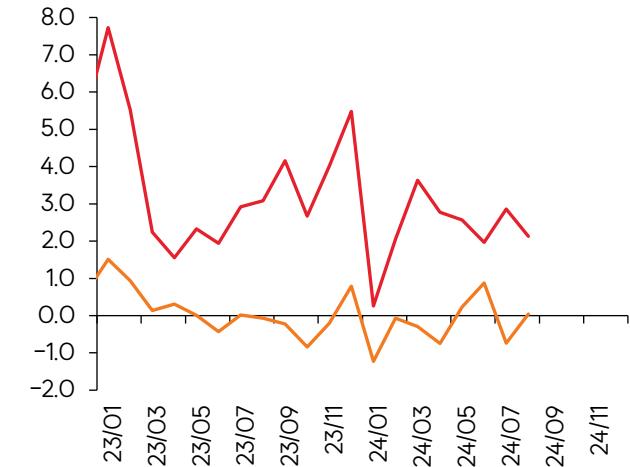


자료 : Fed, SK증권

주: 2024년말 대상 전망치임

Core Point 3

(YoY %) ————— 소매판매 —————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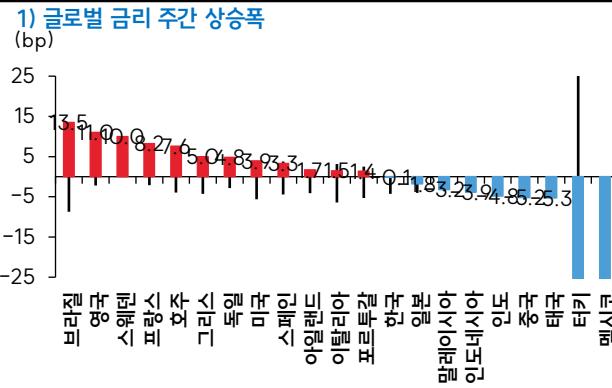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SK증권

2. FICC Core 3 Point

SK증권 리서치센터

- 주간 글로벌 금리는 상승.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빅컷에도 파월 의장의 인하 속도 조절 시사에 의한 중장기물 중심 되돌림으로 소폭 상승해 3.70% 초반대 기록
- 유가는 하리케인 '프랜신' 걸프만 상륙에 따른 원유 시설 가동 중단 및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대상 정밀 공격 등 지정학 리스크 확대로 상승해 70달러 초반대 기록
- 환율은 추석 연휴 전 미 연준 빅컷 선반영 및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 영향으로 소폭 상승해 1320원 후반대 기록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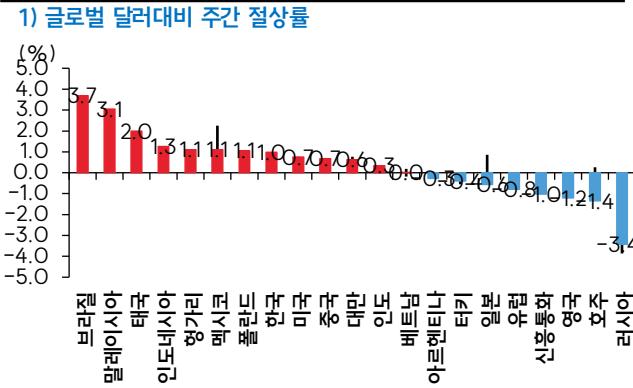


2)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자료 : Bloomberg, SK증권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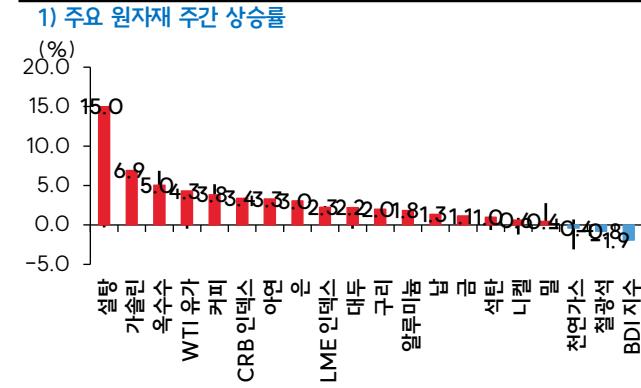


2) 원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



자료 : Bloomberg, SK증권

원자재



2) 국제유가 변동(WTI 기준)



자료 : Bloomberg, SK증권

3. 위험과 자산가격

SK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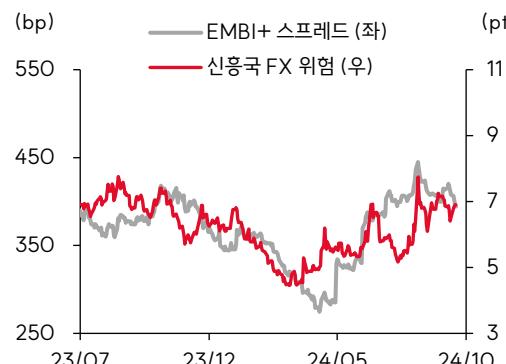
- 매크로 리스크는 경기 침체 우려 발생 전 수준으로 낮아졌음. 신용 리스크도 재차 낮아지며 리스크 부담 크게 완화되고 있는 상황
- FOMC 빅컷 선반영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FOMC에서의 중립금리 상향 조정에 3.7%로 소폭 상승

위험

(1) 금융시장



(2) 신흥국



(3) 단기자금시장



(4) 신용



자산가격

(1) 금리 vs 주식



(2) 원자재 vs 달러



4. 글로벌 주식시장: 가격

SK증권 리서치센터

- 미국 금리인하 개시 기대감에 신흥국 자금 유입 가속화, 신흥 증시가 선진 증시 대비 양호한 성과를 기록
-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에서 상승한 업종은 에너지, 금융, 산업재, 소재, 금융, 통신 등 방어주 업종 강세와 IT 업종 부진으로 스타일에서는 가치 제외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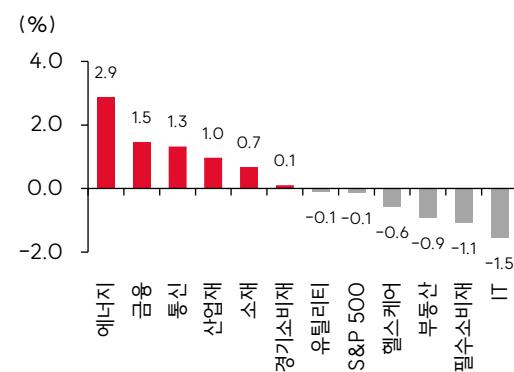
주식: 지역/국가

(1) 글로벌 증시 추이 및 선진 vs 신흥



주식: 섹터

(1) 미국 S&P 500 주간 섹터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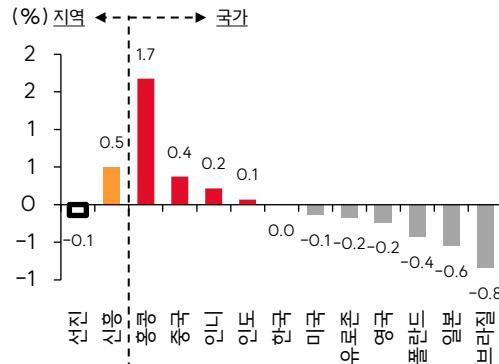


주식: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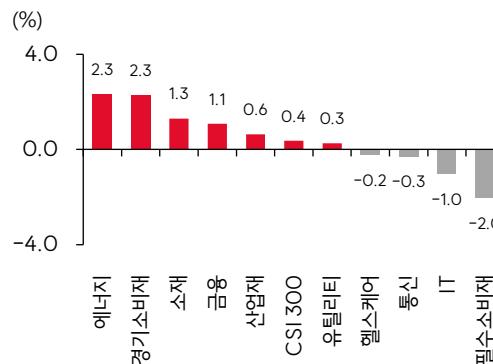
(1) 미국 및 신흥 증시: 성장 vs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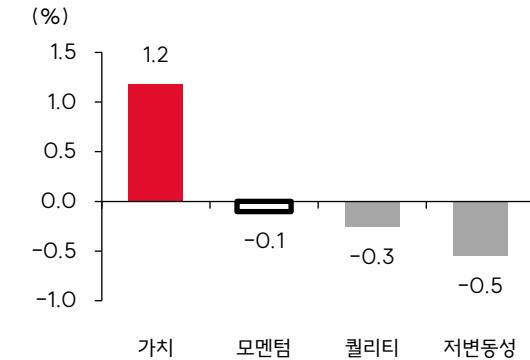
(2) 국가별 주간 수익률



(2) 중국 CSI 300 주간 섹터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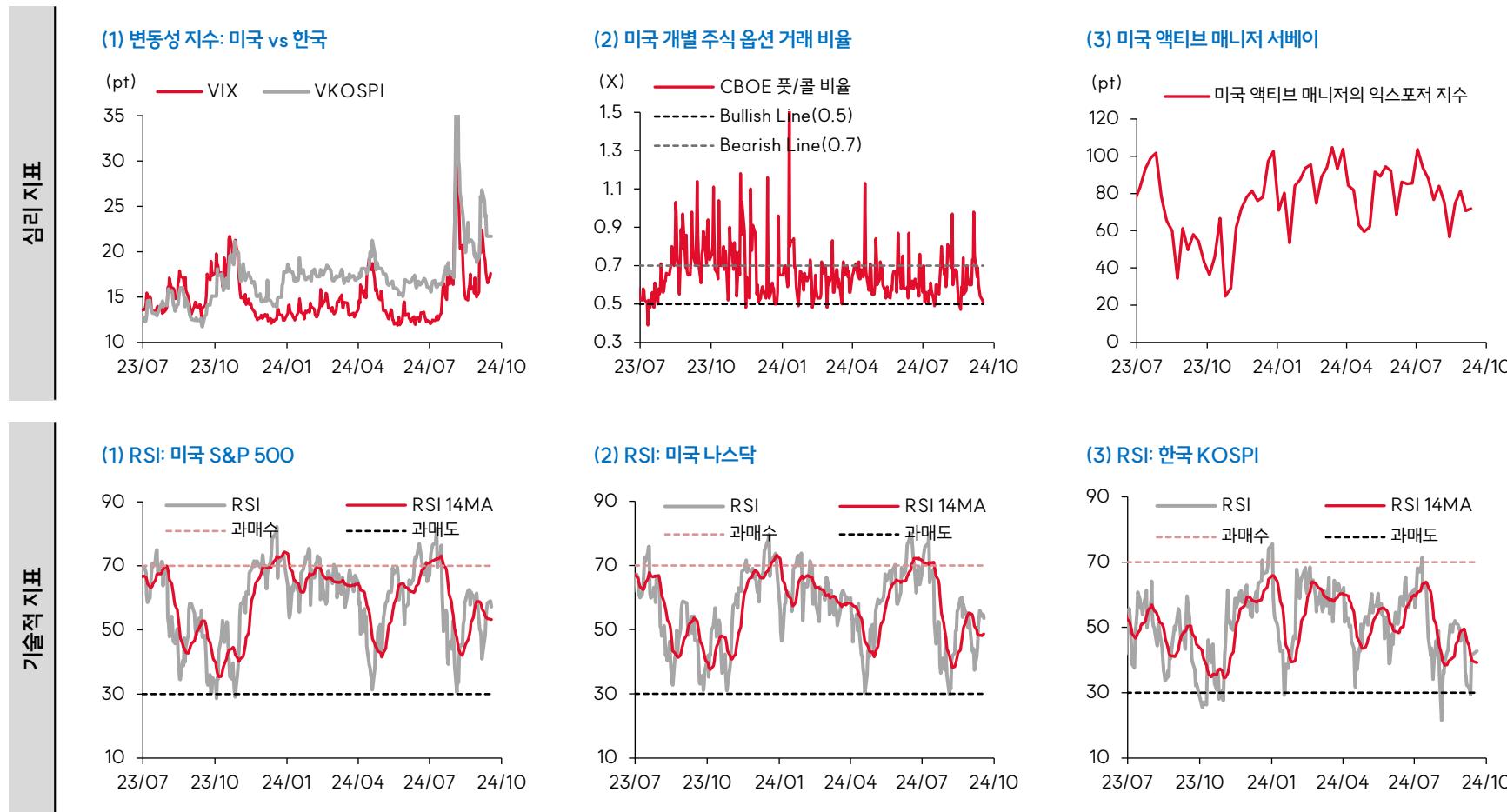
(2) 스타일별 수익률



5. 글로벌 주식시장: 심리와 기술적 지표

SK증권 리서치센터

- VIX 지수는 8월 초 경기 침체 우려 발생 전 수준에 위치. CBOE 풋/콜 비율도 불리쉬 라인에 위치해 현재 증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기술적 지표 상 S&P500은 과매수권에 가까운 상황이지만 이와 다르게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과매도권에 가까움



6. 글로벌 주식시장: 이익과 밸류에이션

SK증권 리서치센터

- 미국 증시의 EPS 추정치 변화 크지 않은 가운데 나스닥 지수의 이익수정비율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 유로스톡스 이익수정비율도 회복 중에 있음
- 주요국 증시 중 중국과 국내 증시의 이익 모멘텀 부진 지속되는 상황. 특히 국내 증시 EPS 추정치는 하락 전환한 이후 회복하지 못한 상태

미국 S&P500



일본 TOPIX



미국 나스닥



중국 CSI 300



유로존 Stoxx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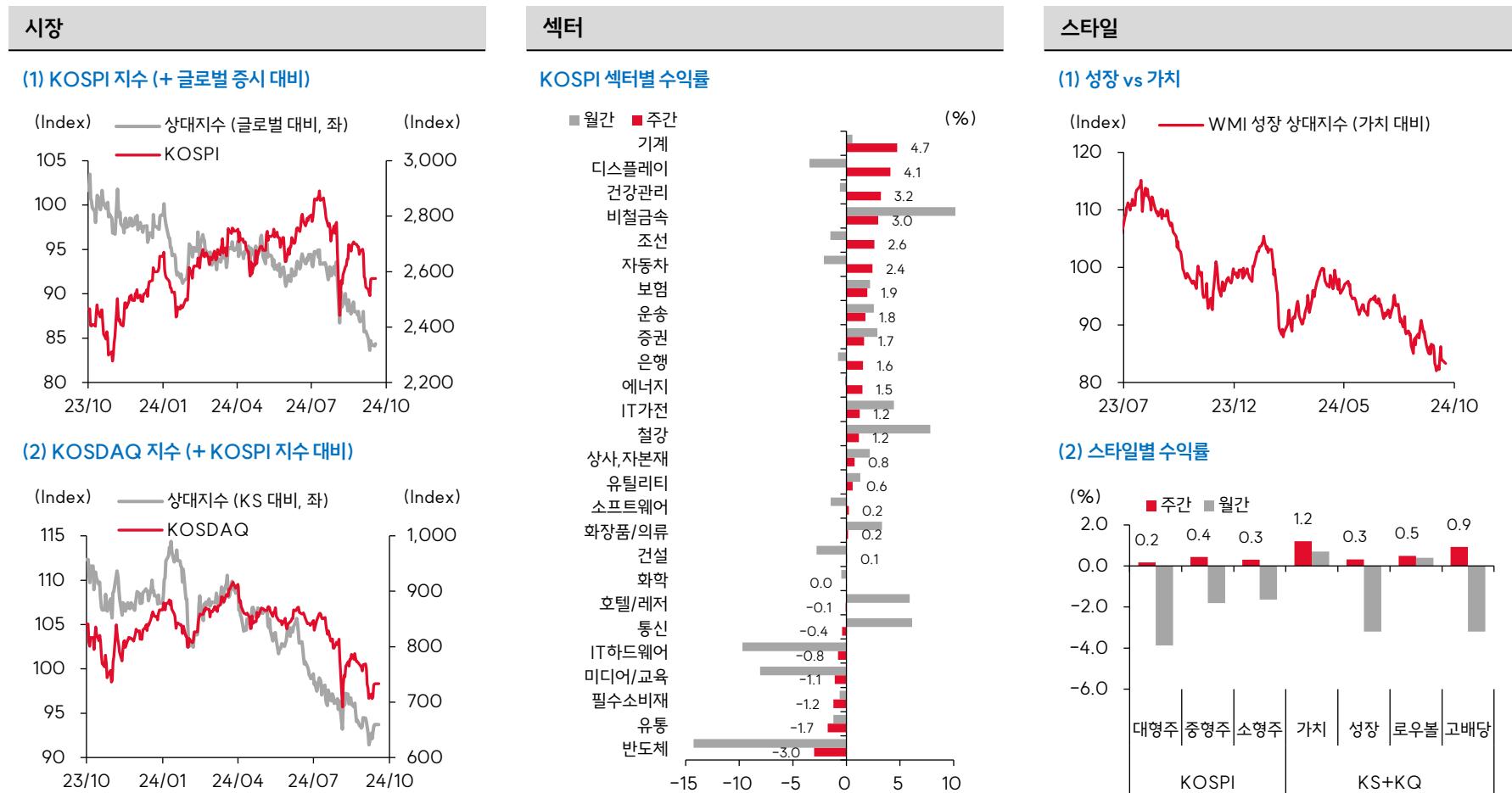
한국 KOSPI



7. 국내 주식시장: 가격

SK증권 리서치센터

- KOSPI 지수는 2,580pt, KOSDAQ 지수는 733pt 기록. 기계(변압기),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등 업종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 부진에 지수 등락폭 제한적
- 스타일의 경우 성장 업종의 성과 편차로 인해 가치와 고배당이 우수한 성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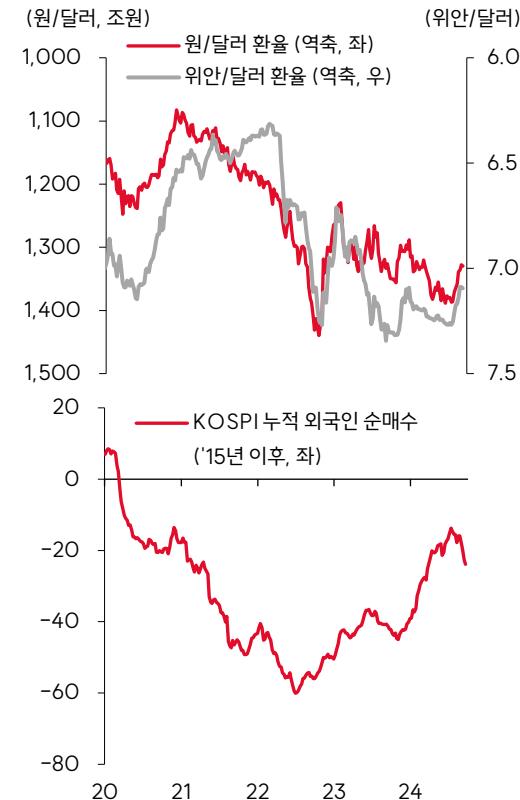
8. 국내 주식시장: 수급

SK증권 리서치센터

- 추석 연휴로 이번주 첫 거래일 맞이한 가운데 외국인은 9/19 KOSPI 현물을 11,654억원 순매도, K200 선물을 3,132억원 순매수. 외국인 현선물 포지션 엇갈리며 지수 상승 제한적이었음
- 수익률 상위권에 위치한 기계,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업종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강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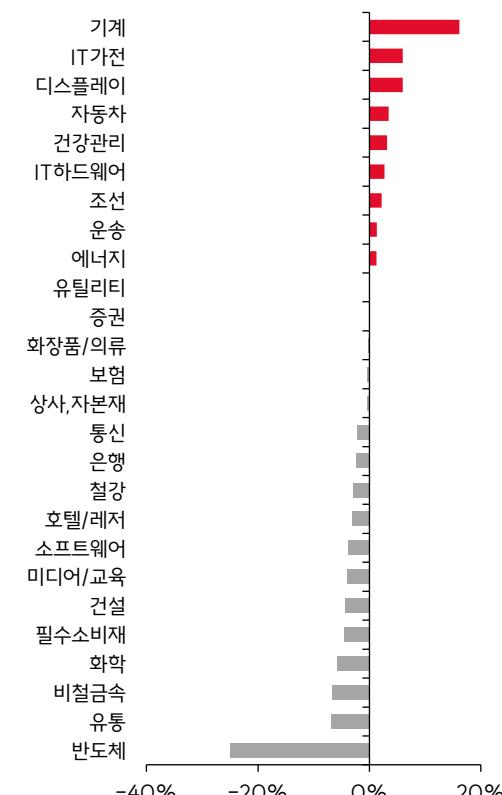
수급: 시장

KOSPI 외국인 순매수와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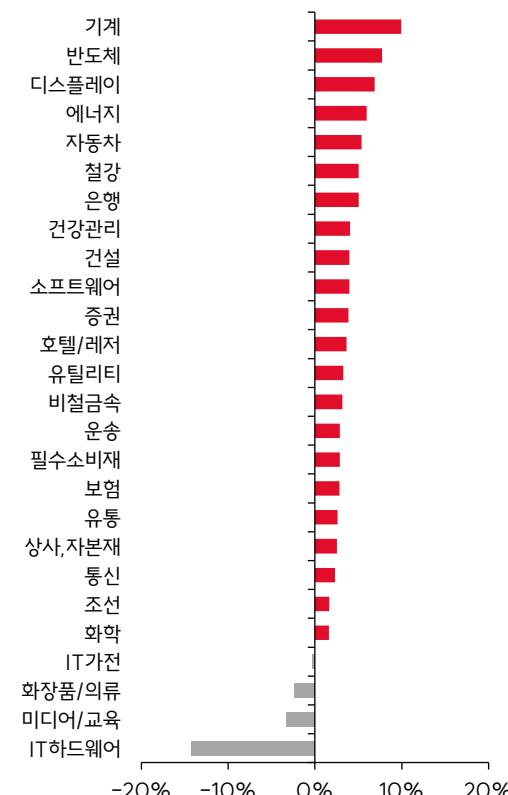


수급: 섹터

1) 주간 KOSPI 섹터별 외국인 순매수 강도



2) 주간 KOSPI 섹터별 기관 순매수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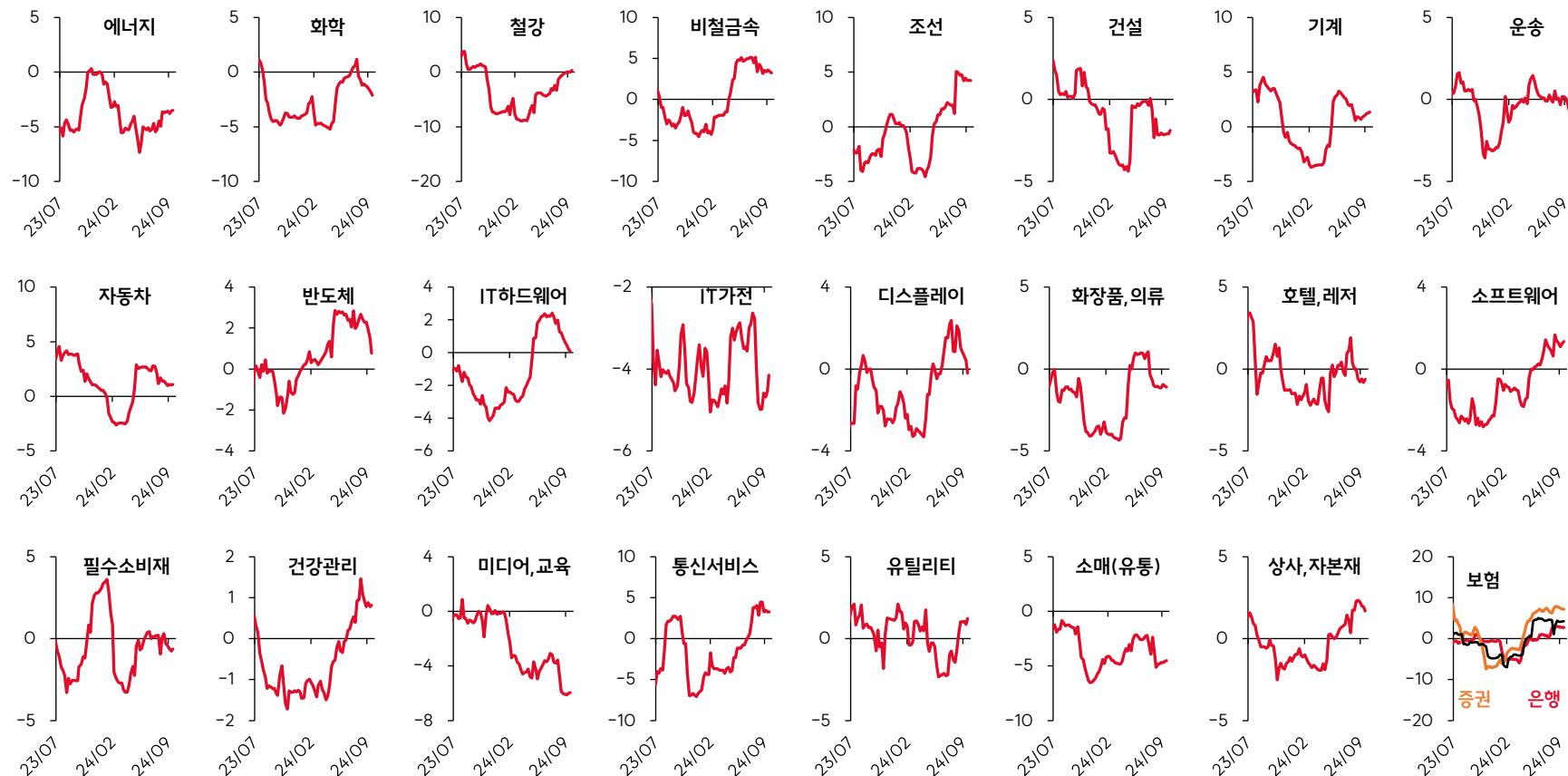


9. 국내 주식시장: 이익

SK증권 리서치센터

- 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업종으로는 기계, IT가전, 호텔/레저, 소프트웨어, 필수소비재, 미디어/교육, 유통 등. 그중 기계는 주간 기준으로도 수익률이 가장 좋았음
- 반면 이익모멘텀 부진한 업종은 화학, 운송, 반도체, IT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상사/자본재. 특히 운송, 디스플레이 업종의 이익수정비율은 마이너스권으로 하락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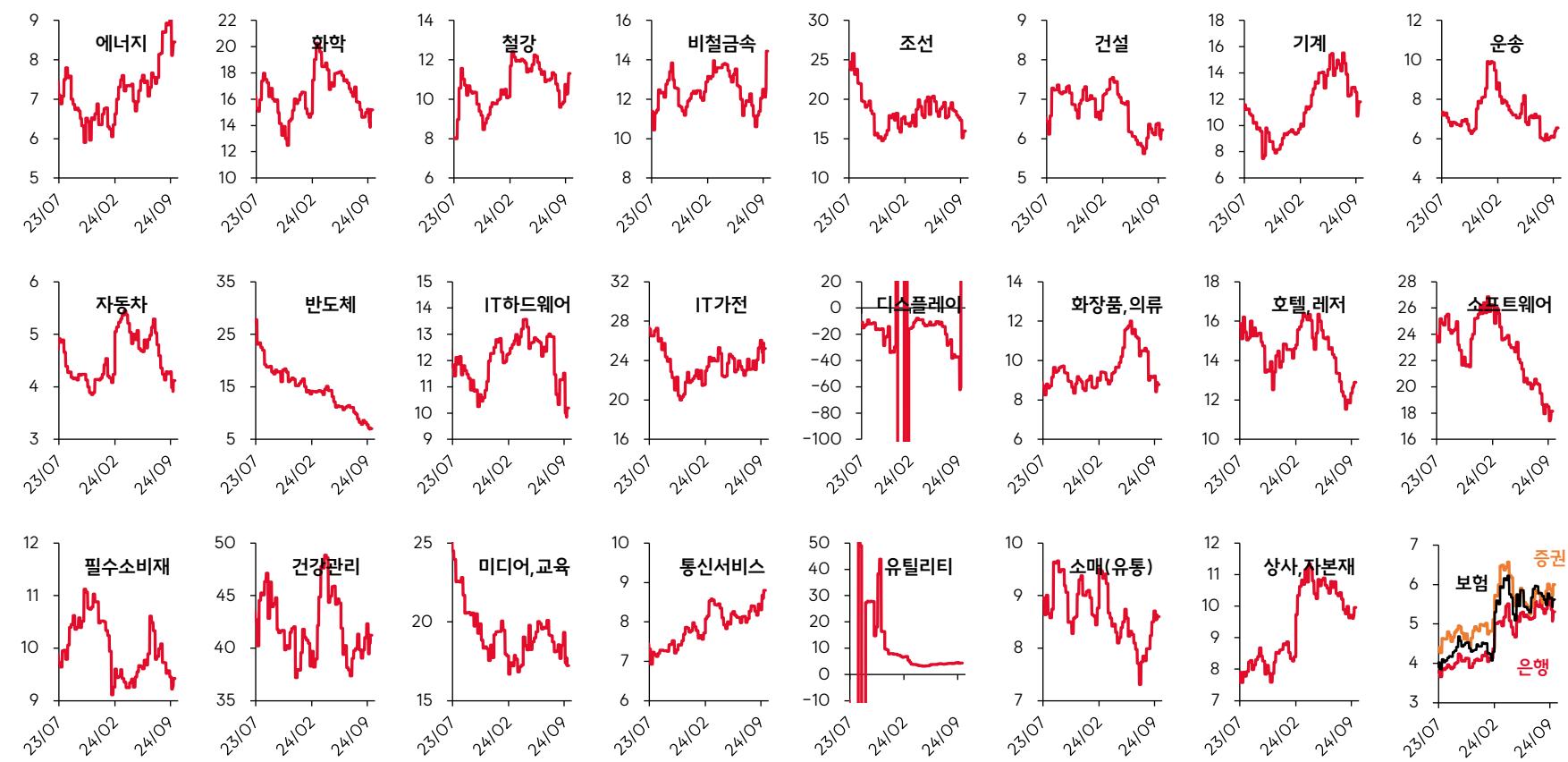
KOSPI 섹터별 이익수정비율 (%)



10-1.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SK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섹터별 12MF PER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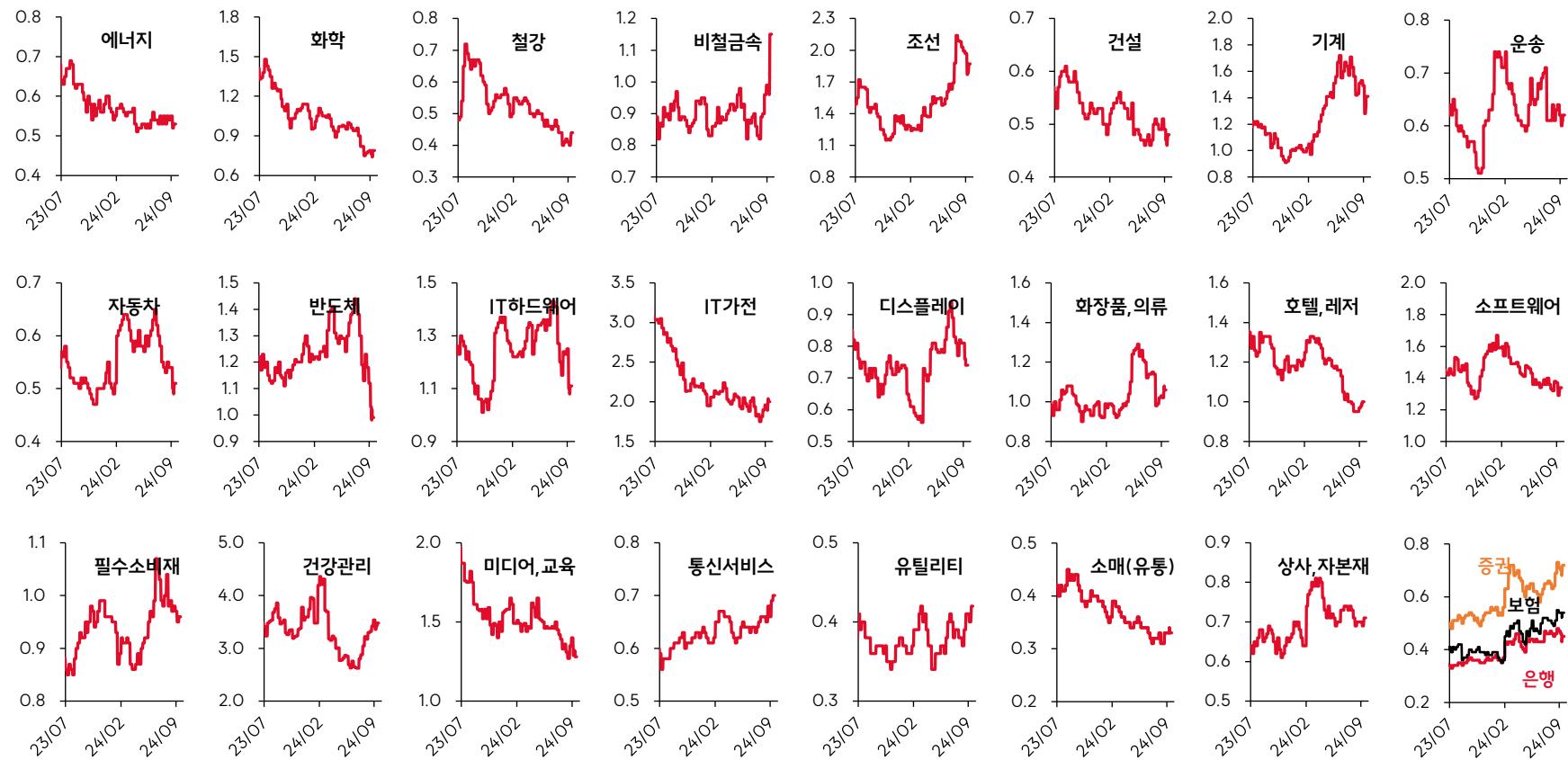


10-2.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SK증권 리서치센터

- 월간 기준으로 주가 수익률이 가장 우수한 비철금속 업종의 12개월 선행 PBR은 1.15배로 상승. 반면 철강, 가전, 호텔/레저, 상사/자본재의 밸류에이션은 점진적인 상승 보이고 있음
- 주가 조정 이어졌던 반도체의 12개월 선행 PBR은 0.99배를 터치

KOSPI 섹터별 12MF PBR (X)



11. 국내 주식시장: 종목

SK증권 리서치센터

-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을 개선시킨 한일시멘트가 이익 모멘텀 1위, 이익 규제 완화로 호텔/레저 업종에 매수세 가져온 강원랜드가 이익 모멘텀 2위 기록
- 이익 모멘텀이 양호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강도가 높은 종목은 강원랜드, 삼성증권, 삼성물산, 한국콜마, KCC
-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높으나 기관의 관심이 낮았던 종목으로는 HD한국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이 있음

KOSPI 200 주간 종목 동향: 이익 모멘텀 상위

순위	종목코드	종목명	섹터	시총 (조원)	12m fwd. EPS (x)	투자의견	목표주가 (원)		이익수정비율 (%)		주가 수익률 (%)			수급주체별 주간 순매수강도: 코스피 종목 내 백분율 (높을수록 수급 강함)		
							현재	-1W	현재	-1W	1W	1M	YTD	외국인	기관	개인
1	A300720	한일시멘트	건설, 건축관련	1.02	4.93	매수	19,500	19,500	66.7	66.7	-1.9	12.3	14.6	61%	47%	48%
2	A035250	강원랜드	호텔, 레저서비스	3.79	12.24	매수	20,857	20,857	14.3	14.3	14.4	29.9	10.8	96%	95%	2%
3	A016360	삼성증권	증권	4.16	5.24	매수	54,385	54,385	16.7	16.7	0.2	15.6	21.0	68%	83%	18%
4	A011790	SKC	화학	4.43	-58.02	매수	148,000	148,000	0.0	0.0	-7.8	2.5	29.0	8%	36%	88%
5	A069260	TKG휴켐스	화학	0.75	6.7	매수	27,833	27,833	0.0	0.0	-2.6	3.2	-15.1	45%	55%	54%
6	A004800	효성	상사, 자본재	0.81	26.12	매수	64,000	64,000	0.0	0.0	0.1	21.5	-23.1	58%	55%	42%
7	A069620	대웅제약	건강관리	1.53	17.61	매수	175,000	172,500	0.0	0.0	-8.8	18.0	13.2	73%	32%	57%
8	A009540	HD한국조선해양	조선	11.89	8.57	매수	242,333	242,333	0.0	0.0	-9.3	-2.8	39.0	95%	7%	77%
9	A028260	삼성물산	상사, 자본재	26.65	10.72	매수	202,800	202,800	10.0	10.0	0.4	10.8	15.8	80%	96%	4%
10	A285130	SK케미칼	화학	0.83	15.16	매수	68,000	68,000	0.0	0.0	-3.2	9.1	-28.8	44%	53%	58%
11	A000240	한국엔컴퍼니	자동차	1.55	3.73	매수	22,000	22,000	0.0	0.0	-5.4	9.9	4.7	52%	64%	39%
12	A207940	삼성바이오로직스	건강관리	66.55	63.1	매수	1,089,474	1,089,474	6.3	6.3	-2.2	5.1	23.0	93%	17%	22%
13	A326030	SK바이오팜	건강관리	8.14	60.12	매수	123,077	123,077	0.0	0.0	-9.6	34.4	3.6	96%	20%	9%
14	A161890	한국콜마	화장품, 의류, 완구	1.65	14.47	매수	86,333	86,333	0.0	0.0	7.4	23.0	30.6	92%	70%	11%
15	A005300	롯데칠성	필수소비재	1.20	8.55	매수	185,769	185,769	0.0	-7.1	-2.0	-3.2	-11.7	36%	40%	69%
16	A034220	LG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5.35	-33.11	매수	14,889	14,889	11.1	11.1	-2.4	6.1	-9.2	10%	16%	91%
17	A004370	농심	필수소비재	2.30	11.83	매수	550,000	550,000	9.1	-9.1	-1.3	-15.0	-7.3	48%	25%	80%
18	A002380	KCC	건설, 건축관련	2.67	4.85	매수	405,000	405,000	33.3	33.3	4.2	7.9	31.3	71%	86%	15%
19	A383220	F&F	화장품, 의류, 완구	2.24	5.44	매수	95,000	95,000	0.0	0.0	1.0	22.1	-34.3	58%	76%	29%
20	A042670	HD현대인프라코어	기계	1.29	5.55	매수	10,733	10,733	0.0	0.0	-6.3	-0.9	-17.5	30%	20%	87%

주: 코스피 200 지수 내 투자의견 중립 이상 종목 중 1. 이익수정비율(1M) 레벨 높고, 2. 이익수정비율(1M) 전주대비 개선된 폭 높고, 3. 목표주가 상향률(1M) 높은 종목 순)

자료 : SK증권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art 3.
주간
Check Point

주간 경제 캘린더

SK증권 리서치센터

날짜	국가	지표	실제	예상	이전
9/16 (월)	미국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pt) (9월)	11.5	-3.9	-4.7
	유로존	노동비용지수 (YoY%) (2Q)	4.7	4.3	5.0
9/17 (화)	미국	명목·근원 소매판매 (MoM%) (8월)	0.1 0.1	-0.2 0.2	1.1 0.4
	미국	명목·근원 소매판매 (YoY%) (8월)	2.1 2.3		2.9 3.1
	미국	산업생산·제조업생산 (MoM%) (8월)	0.8 0.9	0.2 0.3	-0.9 -0.7
	미국	산업생산·제조업생산 (YoY%) (8월)	0.0 0.2		-0.7 -0.7
	미국	기업재고 (MoM%) (7월)	0.4	0.3	0.3
	미국	설비가동률 (%) (8월)	78.0	77.9	77.4
	독일	ZEW 경기동향지수 (pt) (9월)	-84.5	-80.0	-77.3
9/18 (수)	미국	FOMC 금리 결정 (%), 상단) (9월)	5.00	5.25	5.50
	미국	주택착공건수·건축허가건수(속) (백만건) (8월)	1.356 1.475	1.310 1.410	1.237 1.406
	유로존	명목·근원 소비자물가지수 (YoY%) (8월)	2.2 2.8	2.2 2.8	2.6 2.9
	영국	명목·근원 소비자물가지수 (YoY%) (8월)	2.2 3.6	2.2 3.5	2.2 3.3
9/19 (목)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활동지수 (pt) (9월)	1.7	-1.0	-7.0
	미국	CB 경기선행지수 (MoM%) (8월)	-0.2	-0.3	-0.6
	미국	기존 주택 판매 (백만건) (8월)	3.860	3.920	3.960
	영국	BOE 통화정책회의 (%) (9월)	5.00	5.00	5.00
9/20 (금)	중국	LPR 1년·5년 결정 (%) (9월)		3.35 3.85	3.35 3.85
	일본	BOJ 금융정책회의 (%) (9월)		0.25	0.25
	일본	명목·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지수 (YoY%) (8월)		3.0 2.8	2.8 2.7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9/23 (월)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속) (pt) (9월)	48.0	47.9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속) (pt) (9월)	54.0	55.7
	유로존	HCOB 제조업 PMI(속) (pt) (9월)		45.8
	유로존	HCOB 서비스업 PMI(속) (pt) (9월)		52.9
	독일	HCOB 제조업 PMI(속) (pt) (9월)		42.4
9/24 (화)	독일	HCOB 서비스업 PMI(속) (pt) (9월)		51.2
	미국	CB 소비자신뢰지수 (pt) (9월)		103.3
	미국	S&P/케이스-쉴러 주택가격 (MoM%) (7월)	0.4	0.6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pt) (9월)		86.6
9/25 (수)	한국	생산자물가지수 (YoY%) (8월)		2.6
	미국	신규 주택 판매 (백만건) (8월)	0.700	0.739
	미국	건축허가건수(확) (백만건) (8월)	1.475	1.406
9/26 (목)	한국	소비자신뢰지수 (pt) (9월)		100.8
	미국	실질 GDP 성장률(확) (QoQ연율%) (2Q)	3.0	1.4
	미국	명목·근원 PCE물가지수(확) (QoQ%) (2Q)	2.5 2.8	3.4 3.7
9/27 (금)	미국	명목·근원 내구재 주문 (MoM%) (8월)		9.8 -0.2
	미국	명목·근원 PCE물가지수 (YoY%) (8월)	2.4 2.6	2.5 2.6
	미국	명목·근원 PCE물가지수 (MoM%) (8월)	0.2 0.2	0.2 0.2
	미국	개인 소비 지출 (MoM%) (8월)	0.3	0.5
	미국	미시간대 기대인플레(확) (%) (9월)	2.7	2.8
	미국	미시간대 5년 기대인플레(확) (%) (9월)	3.1	3.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지수(확) (pt) (9월)	73.0	72.1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확) (pt) (9월)	69.0	67.9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평가지수(확) (pt) (9월)	62.9	61.3
	일본	[토] 소매판매 (YoY%) (8월)		2.6

일정	9월 3주	[월] 중국 휴장(중추절, ~17), 일본 휴장(경로의 날), 한국 휴장(추석, ~18) [금] 하커 연설, 라가르드 ECB 총재 연설			
	9월 4주	[월] 일본 휴장(추분의 날), 보스틱·굴스비·카시카리 연설, 국고채 10년물 입찰 [화] 미국채 2년물 입찰 [목] 파월 연준 의장·콜린스·윌리엄스·바·쿠글러·카시카리 연설			